

도덕의 본질에 대한 연구 토대로서의  
생태적 도덕 감정:  
그 한계와 보완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 성 한 (Kim, Sung-han) \*

(E-mail : kishan1209@daum.net)

논문접수일 : 2013년 7월 15일

논문심사일 : 2013년 7월 25일

게재확정일 : 2013년 8월 13일

---

\* 학위취득대학 : 고려대학교

현직: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센터 조교수

도덕의 본질에 대한 연구 토대로서의  
생태적 도덕 감정:  
그 한계와 보완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문요약>

윤리학의 뿌리 깊은 논쟁 중의 하나는 도덕의 본질이 무엇인  
냐는 것이다. 윤리학의 역사상 이러한 논쟁은 대체로 순수 철학  
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문제를 과학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윌슨(E. O. Wilson)이 사  
회생물학을 통해 도덕을 통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이래 이러  
한 연구는 흥미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선구적  
역할을 한 학자는 루즈(M. Ruse)로, 그는 윌슨의 의지를 구현하  
기 위해 노력했던 흔치 않은 철학자다. 하지만 그는 전문적인  
윤리학자가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  
해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의 이론  
은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이후의 학자들은 그의  
입장의 장단점을 취합하여 더욱 나은 이론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을 경주했는데, 이로 인해 도덕 판단의 기작들에 대한 설명이  
정교해져 가고 있고, 관련 논의 또한 풍부해지고 있다. 이 논문  
에서 필자는 도덕 심리학 분야에서의 과학적 연구 성과를 이용  
하여 루즈의 입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덕의 본질에 대한 해  
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짧은 지면에서 충분히  
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는 일종의 시안(試案)으로, 더  
욱 세밀한 논의를 통해 여러 부분들에 대한 보충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 주제어 ] 도덕 감정, 도덕 심리학, 도덕 원리, 도덕 판단,  
생태적

## I. 머리말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도덕 심리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이러한 연구 중에서 특이한 것 중의 하나는 도덕 심리를 진화론적으로 구명하려는 시도다. 다윈(C. Darwin)에서 본격화된 이와 같은 탐구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비록 인간이 갖추고 있는 도덕적 특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와 유사한 특징이 인간 아닌 동물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은 도덕의 유래를 초월적인 존재에게서 찾기보다는 인간의 진화론적인 기원에서 찾으려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으며, 때문에 진화론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진화론적 탐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탐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생물학만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포함한 생물학 외의 요인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들은 생물학적인 설명이 이루어진다고 일컬어지는 영역마저도 훨씬 미시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도덕 심리에 대한 탐구는 오늘날 진화론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도덕 심리를 연구하는 분야로 거듭나고 있다. 도덕 심리학(moral psychology)으로 불리며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분야에는 인지심리학자, 뇌과학자, 진화론자 등 자연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인류학자와 사회학자 등 사회과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문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 글은 도덕 심리학 분야에서의 과학적 연구가 메타 윤리학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

\* 본 연구는 숙명여대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1303-0047

위해 필자는 도덕 감정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을 윤리학의 전 영역에 적용하려 했던 루즈(Ruse) 이론의 문제점을 도덕 판단에 대한 오늘날의 과학적 연구 성과를 빌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서 필자는 이러한 연구 성과가 메타 윤리학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부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타진해 보고자 한다.

## II. 도덕 감정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

### 1. 마이클 루즈(M. Ruse)의 생래적 도덕 감정

루즈(Ruse)는 윌슨(Wilson)의 학문적 통섭에 대한 주장을 충실히 이어받아 윤리학의 전 영역을 생물학으로 통섭해 보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치 않은 학자다. 그에 따르면 인류는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혈연 이타성과 호혜적 이타성 외에 도덕 감정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감정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Ruse 1986, 68-9). 첫째 이는 보편화 가능성을 갖는 특이한 감정이다. 예컨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그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누구이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는 ‘~를 하고 싶다’거나 ‘~를 하고 싶지 않다’는 단순 감정이 아니라 ‘~를 해서는 안 된다’거나 ‘~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동반된 감정이다. 루즈(Ruse 1986, 221)는 우리가 이와 같은 감정을 후성적 규칙(epigenetic rule)으로 갖게 되었으며, 이는 인류가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론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우리의 본성이 지금과 차이가 있었다면 이러한 도덕 감정 또한 지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꿀벌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의 도덕 감정은 현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에 비해 개인보다는 집단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극히 부

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감정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감정에 포함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먼저 루즈(Ruse 1986, 222)는 근친도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지는 의무감을 여기에 포함시킨다. 우리는 자식에게 가장 강한 의무감을 느끼고, 근친도가 낮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러한 의무감을 약하게 느끼게 된다. 그러다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의무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은 진화에 의해 주어진 생래적인 반응이다. 다음으로 루즈(Ruse)는 공리주의의 일부 특징, 그리고 칸트의 도덕 법칙 중 일부가 이와 같은 감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루즈(Ruse)는 공리주의의 궁극적 기준인 쾌락과 고통, 그리고 행복을 중시하는 특징을 받아들임에 반해, 모든 존재들을 동등하게 대하라는 요구는 거부한다(Ruse 1993b, 505; 김성한 2011, 325). 한마디로 이는 우리의 생물학적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정언명법과 유사한 것에 대한 직관이 진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한다(Ruse 1986, 244; 김성한 2011, 323).

이처럼 도덕 감정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루즈(Ruse 1986, 214)는 자신의 메타 윤리학적 입장을 주관주의(subjectivism)로 규정한다. 그가 말하는 주관주의란 도덕이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 그리고 성향에 의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주관주의는 자칫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도덕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가 주관주의를 받아들일 경우 그와 같은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 루즈(Ruse 1993a, 151)는 도덕에 대한 ‘객관성의 환상(illusion of objectivity)’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루즈(Ruse)에 따르면 모든 인류는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덕이 객관적이라는 집합적인 환상(collective illusion)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환상은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인류에게 주어지게 된 것으로, 이로 인해 우리는 도덕을 임의적으로 파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루즈(Ruse)의 다윈주의 윤리설은 이상에서 살펴 본 도덕 감정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설명을 토대로 규범 윤리와 메타 윤리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윤리학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할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술하는 설명일 것이다. 이를 루즈(Ruse)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도덕 감정에 대한 설명이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윤리학적 논의, 즉 규범 윤리나 메타 윤리학적 논의는 사상누각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1)</sup> 아쉽게도 도덕 감정에 대한 루즈(Ruse)의 설명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루즈(Ruse)의 도덕 감정에 대한 설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자.

## 2. 루즈(Ruse)의 생래적 도덕 감정에 대한 설명의 문제점

### 1) 이타성, 도덕 감정, 도덕 판단 그리고 도덕 판단 능력

루즈(Ruse)의 설명을 살펴보기에 앞서 단어의 의미부터 정리해 보자. 루즈(Ruse)가 말하는 도덕 감정이란 ‘생래적인(innate)’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생래적’이란 대체로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적응에 도움이 됨으로써 인간에게 장착된 것을 의미한다(Joyce 2006, 2). 물론 이와 같은 생래적인 특성이 환경과 무관하게 발달할 수 있다거나 도덕에 관한 유전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도덕 감정이 생래적인 것이라는 의미는 그러한 감정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적응적 이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우리가 그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되

1) 이러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윤리학적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진화적 사실의 윤리학적 함의를 발견해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사실을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내는 작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실이 윤리학적 함의를 논하기 위한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래적인 도덕 감정은 이와 유사한 개념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 먼저 루즈(Ruse)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도덕 감정은 이타성과 다르다. 이타성이 단순히 친사회적인(pro-social)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덕 감정은 이러한 이타성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의무감이다. 양자가 다르다는 점은 도덕 감정에 대한 다윈의 설명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다윈(Darwin)에 따르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들과 공유하는 사회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물들과는 달리 우리는 정신 능력, 특히 과거를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동물들이 갖지 못하는 도덕 감정을 갖게 되었다(다윈 저, 김관선 옮김 2006, 561). 이처럼 다윈(Darwin)은 도덕 감정을 일차적인 감정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회적 본능을 갖춘 생물이 이성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얻게 된 이차적 감정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도덕 감정에 대한 적절한 시각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도덕 감정과 이타성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 감정은 도덕 판단과 다른 개념이다. 도덕 판단의 핵심적 특징을 감정에 두는 사람들은 도덕 감정과 도덕 판단을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도덕 판단의 정의적 특징이 무엇인지는 극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메타 윤리학적 논쟁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이러한 판단이 명령을 표현하는 것인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인지, 사실에 대한 보고인지, 사실에 대한 보고 중에서도 화자(話者)에 관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것인지, 화자가 속해 있는 문화에 관한 사실을 보고하는지, 신의 명령에 관한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지, 혹은 마음과 독립되어 있는 사실을 보고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도덕 감정과 도덕 판단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분해야 할 것은 도덕 감정과 도덕 판단 능력이다. 도덕성의 생래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우리는 둘 중의 하나를 염두에 두는데, 양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자가 모두 생래적임을 주

장하는 학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도덕 판단 능력의 생래성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하우저(M. Hauser)는 그 대표자인데, 그는 인간이 언어에 관한 보편 문법을 생래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촘스키(N. Chomsky)의 생각을 끌어온다. 촘스키에 따르면 인류는 언어에 관한 보편 문법을 생래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문법을 통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 인류가 이러한 문법으로 인해 모두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적어도 누구나 언어를 사용하며, 이러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보편 문법이라는 형식으로 인간에게 내장되어 있다(Hauser 2006, 37-8).

하우저(Hauser)는 이와 같은 촘스키(Chomsky)의 입장을 자신의 도덕 심리학에 활용하는데, 그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 능력과 더불어 도덕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태어난다. 물론 '도덕을 관장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의 도덕 시스템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서로 다른 문화는 서로 다른 도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적어도 인간이라면 누구건 도덕 판단을 내리며, 이는 곧 도덕 판단 능력을 타고 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우저는 주장한다(Hauser 2006, viii).

하우저(Hauser)의 이와 같은 설명은 우리가 생래적인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갖추었지만 도덕 판단이나 도덕 감정의 내용은 사람들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2)</sup> 또한 그의 설명은 생래적인 도덕 판단 능력을 통해 매우 원초적인 도덕 감정에서 고도로 추상화된 도덕 원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덕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정리한 내용이 적절하다면 우리는 도덕 판단 능력, 도덕 판단 그리고 도덕 감정을 한 데 묶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생래성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들을 구분해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

2)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의 유사성, 그리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등으로 인해 그 내용이 유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 2) 진화에 의해 주어진 도덕 감정이 보편화 가능한 의무감일 수 있는가?

이제 루즈(Ruse)의 도덕 감정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 루즈(Ruse)에 따르면 도덕 감정은 의무감이 동반된, 보편화 가능성을 갖는 감정이다. 그가 말하는 보편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또한 누구이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정의의 뒷부분인 “누구이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고찰해 보자. 이와 같은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를 대상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특징에 따른 정의인 ‘사실적 정의’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생래적 도덕 감정은 실제로 누구이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감정이다. 만약 어떤 도덕 감정이 있는데 이를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래적 도덕 감정이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를 ‘규정적(prescriptive) 정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특징이 아닌, 대상이 마땅히 가져야 할 특징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같은 정의에 근거해 보자면 생래적 도덕 감정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설령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감정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사람들이 모두 실제로 옳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생래적 도덕 감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규정적 정의에 따르면 생래적 도덕 감정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그와 상관없이 누구이건 옳다고 생각해야만 하는 감정이다.

그런데 루즈(Ruse)가 말하는 생래적 도덕 감정은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루즈(Ruse)의 정의를 규정적 정의라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생래적 도덕 감정을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 ‘생래적’이라는 단어가 어떤

마법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해야 할 별다른 이유는 없는 듯하다. ‘생래적’이 모든 사람들이 응당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힘을 갖는 단어가 아닌 이상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이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래적 도덕 감정에 대한 사실적 정의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 또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내용을 사실적 정의에 포함시킬 경우 이는 루즈(Ruse) 자신이 생래적 도덕 감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도덕 감정을 루즈(Ruse)가 생래적 도덕 감정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때문에 그의 정의를 사실적 정의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루즈(Ruse)가 도덕 감정에 포함시킨 혈연이나 소규모 사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정서 반응은 진화에 의해 주어진 도덕 감정일 수 있지만 이를 누구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굳이 루즈(Ruse)의 정의를 사실적 정의로 파악하고자 할 경우 우리는 그가 생래적 도덕 감정의 특징을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결국 그의 생래적인 도덕 감정에 대한 정의 중 뒷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하건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으로 정의의 앞부분인 ‘누구에게도 적용된다’는 어떤가? 이러한 정의는 대체로 헤어(R. M. Hare)가 밝힌 바 있는 도덕 판단의 특징을 그대로 끌어온 것처럼 보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헤어(Hare)는 우리의 도덕 판단이 보편화 가능성(universalizability)과 처방성(prescriptivism)이라는 특징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성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릴 경우 이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헤어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보편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생래적인 도덕 감정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루즈(Ruse)가 말하는 보편화 가

능성을 갖는 의무감은 ‘생래적인 도덕 감정’임에 반해, 헤어가 말하는 것은 ‘도덕 판단’의 보편화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덕 감정과 도덕 판단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루즈(Ruse)는 생래적 도덕 감정이 헤어가 말하는 보편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루즈(Ruse)가 의도적으로 생래적 도덕 감정과 도덕 판단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별다른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그가 생래적인 도덕 감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공리주의의 입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실상 생래적인 도덕 감정이 아닌 도덕 판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도덕 판단이 곧 생래적인 도덕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의 논의가 혼란스러운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그가 생래적인 도덕 감정에 포함시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예컨대 그는 공리주의가 강조하는 공평무사성을 거부하면서 칸트(Kant)의 정언명법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조금만 생각해도 문제가 있음이 이내 밝혀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칸트(Kant)의 정언명법 또한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공평무사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칸트(Kant)는 ‘혈연이나 아는 사람’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언명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왜?’라는 의문에 대한 이성적 사유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공평무사성이 전제가 되고 있다면 이는 도덕 감정이기보다는 사유 능력 쪽에 더욱 무게가 실려 있는 판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칸트(Kant)는 도덕의 특징을 감정에 두는 윤리 이론을 배격하고 있으며, 도덕 법칙을 ‘이성의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굳이 생래적인 도덕 감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훨씬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 3) 생래적인 도덕 감정에 대한 설명을 메타 윤리학에 활용할 수 있는가?

생래적 도덕 감정이라고 하면, 특히 이것이 진화에 의해 주어진 감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감정이 헤어(Hare)가 말하는 처방성과 규정성을 갖춘 어떤 세련된 도덕 판단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다소 편향성을 띤, 일부 사람들만이 받아들이는 의무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를 다소 투박한, 다듬어지지 않은 의무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이 생래적인 도덕 판단 능력과 생래적인 도덕 감정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을 인정하는 것보다 생래적인 도덕 감정이 곧 도덕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생래적 도덕 감정의 특징과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지를 떠나 만약 생래적인 도덕 감정이 ‘모든’ 도덕 판단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아니라면 적어도 루즈(Ruse)의 도덕 감정에 대한 설명은 메타 윤리학적 논의에 적절히 활용할 수 없다. 만약 루즈(Ruse)가 자신의 도덕 감정에 대한 설명을 도덕 판단의 일부에 대한, 진화론을 이용한 설명이라고 주장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루즈(Ruse)가 자신의 도덕 감정에 대한 설명을 메타 윤리학의 영역에까지 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는 생래적 도덕 감정이 곧 도덕 판단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메타 윤리학이 ‘도덕 감정’이 아니라 ‘도덕 판단’의 본질을 파악하려 하며, ‘일부’ 도덕 판단의 본질을 해명하고자 하는 탐구 분야가 아니라 ‘모든’ 도덕 판단의 본질을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루즈(Ruse)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는 그가 모든 도덕 판단이 ‘생래적인 도덕 감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루즈(Ruse)는 도덕 감정을 “인류가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진화론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갖게 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때문에 이는 ‘생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루즈(Ruse)가 특정한 메타 윤리학적 입장을 옹호하자면 생래적인 도덕

감정이 곧 도덕 판단임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도덕 판단 중에서 도덕 감정이 아닌 사유의 결과로서의 도덕 판단이 있을 가능성은 물론, 심지어 도덕 감정 중에서도 사회화 과정을 통해 획득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생래적인 도덕 감정이 곧 도덕 판단이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루즈(Ruse)는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도덕 판단을 생래적인 도덕 감정으로 포섭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그 대신 그는 생래적인 도덕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도덕 반응이 우리의 진화론적 본성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규범으로서의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하기만 하고 있다(Ruse 1993a, 154-5). 만약 그가 자신의 도덕 감정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의문을 해소하면서 도덕 감정의 특징을 좀 더 정확하게 밝히고, 이것이 진화에 의해 주어졌다는 주장을 엄밀한 증거를 통해 보여주려 했다면, 나아가 그가 모든 도덕 판단을 이러한 설명으로 포섭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의 도덕 감정에 대한 설명을 윤리학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루즈(Ruse)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생래적인 도덕 감정에 부합되지 않은 도덕 판단을 규범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특정한 메타 윤리학적 입장을 취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리고 만다.

### Ⅲ. 이성 능력에 초점을 맞춘 도덕 판단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정서에 초점을 맞춘 설명은 도덕적 회의주의를 옹호하는 논거로 사용된다. 실제로 우리가 도덕 판단의 본질적 특징이 감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모든 것들을 용납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대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아닐까? 루즈(Ruse)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진화 과정을 통해 도덕이

객관적이라는 환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환상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은 단지 진화에 의해 주어졌다는 설명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이와는 다른 방식의 설명을 통해 도덕 판단의 의식 구속력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문제를 적시한 윤리학자들은 도덕 판단에서의 감정적 측면보다는 이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이처럼 도덕 판단에서의 이성의 역할을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칸트(Kant)를 들 수 있다. 칸트(Kant)는 이성주의자로, 그의 이성주의자로서의 면모는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덕 판단은 이성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보편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데에서 적절히 드러난다. 칸트(Kant 1950, 53)에 따르면 “순수 원리를 경험적 원리와 혼합시키는 철학은 철학이라는 이름조차 얻을 자격이 없다. 하물며 그런 철학이 도덕철학의 이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수원리와 경험적 원리를 혼합함에 의해서 도덕 자체의 순수성까지도 훼손시킬뿐더러 도덕 자신의 목적에도 위반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는 감정이 아닌 사유 능력에 의해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도덕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도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칸트의 이러한 입장은 도덕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입장의 반대편 극단에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오늘날의 학자 중에서 도덕 판단에서의 이성 능력의 중요성을 다른 방식으로 강조한 사람으로는 싱어(P. Singer)를 들 수 있다. 싱어(Singer)는 도덕의 계보를 통시적(通時的)으로 추적하면서 도덕 발달

---

3)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칸트가 자신의 저서에서 도모하고 있는 것이 도덕 판단을 내릴 때의 이성의 역할을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판단의 궁극적인 기준을 이성 능력을 통해 찾아내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에서의 이성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싱어(Singer)는 오랜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생물학적인 이타성 외에 이성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러한 특징과 능력으로 인해 관계적 윤리의 단계를 거쳐 오늘날의 보편주의 윤리를 제시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찬들러(Chandler 1991, 163)는 “선택된 것은 이타성 자체가 아니라 이성 능력 및 행동 결과에 대한 계산 능력과 같은 다른 특성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능력-여기에 혈연에 대한 편애가 더해져-은 진화적 이점으로 인해 존속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자리를 잡게 되자 이들은 그 자체가 진화의 산물이 아닌 새로운 사유 및 행위 방식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며, 또한 항상 적응도를 고양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생물학적 설명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간과되기 쉬운 이성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오늘날의 윤리 체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싱어에 따르면 오늘날의 윤리 이론 체계는 일관성과 정합성 등을 도모하다가 뜻하지 않게 얻게 된 결과물이다. 그는 이를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는 것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성적 사고를 시작한다는 것은 계속 위쪽을 향하다 결국에는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일단 첫 발걸음을 옮겨 놓으면 어디까지 여행하게 될 것인가는 우리의 의지를 벗어나며, 어디에서 멈추게 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할 수도 없다.”(싱어 2012, 155)

싱어(Singer 2012, 188)는 우리가 이성 능력을 동원해 받아들이게 되는 최종적인 도덕 원리로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을 들고 있다. 그는 대부분의 도덕 판단들은 생물학적, 문화적 설명을 통해 그 정체가 폭로됨으로써 그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음에 반해,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은 이성적 정당화 과정을 거쳐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싱어는 우리의 이성 능력을 이용해 탄생한 도덕률의 규범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특정 도

덕 원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만약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일부 도덕 원리만을 남길 수 있고 나머지 도덕 판단은 계보학적 역사를 추적하여 그 정체가 폭로됨으로써 그 정당화 방법 내지 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상어의 설명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덕 판단의 정체를 계보학적 역사 추적을 통해, 또는 도덕 판단에 대한 공시적 연구를 통해 실제로 폭로하고, 극히 일부의 도덕 원리만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만약 사고 능력을 동원해 정당화할 수 있는 도덕 원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일정한 메타 윤리학적 입장을 옹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회의주의로 귀결되지 않는 메타 윤리학적 입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도덕 판단에서 이성적 역할이 핵심임을 말하는 것일까?

최근 이루어진 일련의 실험에서 일부 학자들은 도덕 판단에서 이성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이트(J. Haidt)는 우리의 구조화된 사회생활 방식이 도덕적 직관을 형성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직관주의자 모델(Social Intuitionist Model)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즉각적이면서 자동적으로 도덕 판단을 내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후속적으로 의식적인 추론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감정은 사유 능력에 선행한다(Haidt 2001).

다음으로 그린(J. Greene)과 하이트(Haidt)는 ‘개인적’(personal) 딜레마와 ‘비개인적’(impersonal) 딜레마를 나누고,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을 사용한 실험을 통해 각각의 딜레마에서 윤리적 결정에 개입되는 두뇌 부위들을 확인했다. 여기에서 그는 전자의 딜레마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의 경우 정서 활동과 결부된 두뇌 부위들이 활성화되면서 즉각적인 반

응이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반면 후자의 딜레마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인지 활동과 결부된 두뇌 부위에서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반응의 지체가 나타났음을 확인했다(Greene & Haidt 2002, 517-523).

그런데 이러한 실험 결과가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도덕 감정이 이성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듯이 보인다. 이러한 실험적 사실들은 직관에 의한 반응이 사유에 의한 반응에 비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을 뿐, 이성이나 감정 내지 정서 중 어떤 하나가 도덕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러한 실험이 우리의 일부 도덕적 직관이 진화나 사회 등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기까지 한다면 오히려 이로 인해 그러한 도덕적 직관은 정체가 폭로됨으로써 그 위상에 흠집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직관이 무어(G. E. Moore) 등이 말하는 더 이상 정당화가 불가능한, 그 자체로 자명한 진리가 아니라 진화 과정이나 사회에 의해 주어진 반응임이 밝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4)</sup> 이 경우 싱어(Singer)가 말하는 사고에 의해 정당화 과정을 거친 일부 도덕 원리만이 도덕의 핵심으로 살아남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도덕 판단에서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다.<sup>5)</sup>

---

4)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학자는 싱어다(싱어 2012, 125). 조이스(Joyce 2006, 223) 또한 도덕의 계보에 대한 지식이 도덕 판단에 대한 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5) 그럼에도 논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흄(D. Hume)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성이 정념의 노예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성은 그 자체만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지도 모르며, 정념의 추동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지도 모른다. 하이트(Haidt 2002, 814) 또한 정서적인 개와 이성적인 꼬리라는 비유를 사용하면서 정서와 이성의 관계에서 정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자신의 논문 제목에서 시사하고 있다.

## IV. 도덕 감정에 대한 오늘날의 도덕 심리학적 설명

우리가 이상에서의 입장을 받아들여 도덕 판단에서 감정보다는 이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설령 이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감정은 도덕 판단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다윈이 도덕 감정을 사회적 본능을 갖춘 생물이 이성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얻게 된 이차적 감정으로 파악했다는 점을 상기해 보았을 때, 그리고 감정 자체가 일종의 판단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해 보았을 때 우리는 감정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루즈(Ruse)의 도덕 감정에 대한 입장이 정합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한다면 좀 더 그럴 듯한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루즈(Ruse)의 생래적인 도덕 감정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메타 윤리학적 입장은 크게 ①생래적인 도덕 감정에 대한 루즈(Ruse)의 정의가 적절한지, ②그러한 도덕 감정에 포함되는 것들이 적절하게 선별되었는지, ③생래적인 도덕 감정을 도덕 판단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생래적인 도덕 감정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고, 이러한 감정에 포함되는 것들을 재차 정리하며, 생래적인 도덕 감정을 도덕 판단의 일부로 포함시킬 경우, 그리고 도덕 판단의 특징에 대한 좀 더 치밀한 과학적 설명이 이루어질 경우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생래적인 도덕 감정만으로는 특정한 메타 윤리학적 입장을 옹호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설명은 도덕 판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를 위해 이번에는 도덕 판단을 내리는 데에서의 감정 6)의 역할에 초점을

6) 여기에서 말하는 감정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유 능력과 대비되는 것을 이야기하며, 어떤 전문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맞추고 있는 조이스(Joyce)와 프린츠(Prinz)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도덕 감정은 일종의 의무감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 나타나는 기작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인 감정과는 달라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체로 오늘날의 도덕 심리학에서는 도덕 감정을 일차적인 정서에 대한 이차적인 정서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예를 들어 조이스(Joyce)는 정서를 기본적인 것과 이차적인 것으로 나누는데, 그는 도덕 감정을 기본적인 정서가 아니라 이차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기본적인 정서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화적 이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느껴지도록 구조화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이차적인 정서는 기본적인 정서가 역사적, 문화적 영향에 의해 어느 정도 변형된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차적 정서는 특정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조이스(Joyce 2006, 75 이하)가 예로 드는 이차적 정서는 혐오감과 죄책감 등이다. 이러한 정서는 다른 정서를 경험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정서로, 어떤 대상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가는 어떤 문화에서 살고 있는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깨끗한 서구식 변기에 물을 붓고 마시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아는 사람들은 편한 마음으로 물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반면 변기의 용도를 모르는 다른 문화의 사람이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물을 들이킬 수 있을 것이다. 조이스에 따르면 이러한 혐오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의 현저한 발전, 특히 언어 능력 발달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덕 감정은 이처럼 지적인 능력이 발전하고 나서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죄책감은 일종의 도덕 감정인데 이러한 감정은 지적인 능력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지적인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고 난 후 도덕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조이스(Joyce)의 생각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심지어 사회적 본능을 갖추고 있는 침팬

지와 같은 고등 영장류마저도 인간적 의미의 도덕 감정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처럼 지적인 능력의 발달이 인간적 의미의 도덕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전제라고 한다면 도덕 감정은 이성 능력과 일차적 정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산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

프린츠(Prinz 2009, 85)는 도덕 감정에 대한 논의를 한층 세분화한다. 우선 그는 정서(emotion)와 정서 경향(sentiment)<sup>7)</sup>을 구분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신체는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진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지각하게 되며, 이때 특정한 정서를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뱀을 보았다고 했을 때 우리의 신체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지각하면서 공포라는 정서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서 경향은 특정한 대상이 나타났을 때 특정한 종류의 정서가 나타나는 지속적인 경향이다. 인간 뿐 아니라 동물들은 경험을 통해 세상의 특정한 현상에 대해 일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고양이의 꼬리를 자주 잡아당겼을 때 고양이는 그 아이가 다가올 때마다 화를 내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때 지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내게 되는 경향으로서의 화가 일종의 정서 경향이다. 이러한 정서 경향은 관념과 개념 등을 활용하는 인간의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프린츠(Prinz 2009, 84)가 예로 드는 정서 경향은 관심, 좋아함, 싫어함, 사랑함, 미워함 등이다. 프린츠(Prinz)에 따르면 정서 경향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정서로 나타나며, 도덕성은 이러한 정서 경향을 바탕으로 발달, 전개된 것이다. 프린츠(Prinz 2007, 404-5)에

---

7) 우리말은 인간의 내면을 지칭하는 단어들(관심, 좋아함, 싫어함, 사랑함, 미워함)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외국어 단어의 의미를 살리기가 힘든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두 단어도 그러한 경우인데, 여기서는 후자가 정서적 경향(emotional disposition)을 말한다는 프린츠의 주장(Prinz 2007, 84)에 따라 이에 준해 번역어를 사용했다.

따르면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해 요구되는 심리적 능력은 도덕과 무관한 정서, 정서에 관한 정서, 상대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도덕과 무관한 선호와 행동 성향 등이다. 프린츠(Prinz)는 바로 이와 같은 정서와 능력을 통해 우리가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과 정서 경향은 진화에 의해 주어진 생래적인 것인가? 이 중에서 정서 경향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만약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감정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감정이 정서 경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서 경향 중에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획득된 것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이스(Joyce)와 프린츠(Prinz)의 설명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러한 정서 경향의 사회적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사회적 직관주의자 이론을 전개하는 하이트(Haidt)도 마찬가지다.

만약 이상과 같은 도덕 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도덕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①도덕 판단을 내릴 때 생래적인 요소들이 개입되며, 특히 생래적인 정서가 관여한다. ②하지만 이러한 정서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다른 정서 경향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때문에 도덕 판단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③도덕 판단에는 사유 능력 또한 개입된다.

## V. 도덕 판단에 대한 설명의 종합 가능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도덕 판단을 내릴 때에는 이성 과 감정 모두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우리의 도덕 판단은 이성 또는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양자의 조합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도 각각의 도덕 판단마다 양자의 조합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와 같은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까?

앞에서 우리는 싱어(Singer)의 설명을 개괄했고, 그의 설명이 이성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싱어(Singer)의 설명을 살펴보면 그가 도덕 판단의 기원으로서의 생물학적 이타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싱어(Singer)가 말하는 도덕 원리마저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어떤 정서 반응이 전제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없다면 무한 퇴행에 빠질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생물학적 이타성을 도덕 판단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막연하다. 특히 생물학적 이타성과 도덕 감정은 다른 것이고, 이에 따라 이타성으로부터 도덕 감정으로의 이행 과정이 적절히 서술되어야 함에도 싱어(Singer)는 이러한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도덕 판단이 이루어질 때의 구체적인 기작과 특성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사유 능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도덕 원리에 이르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방금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적절히 담고 있는 도덕 판단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이와 대한 설명은 프린츠(Prinz)와 싱어(Singer)의 입장을 결합시킴으로써 그 시안(試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린츠(Prinz)는 신경생리학, 심리학, 인류학, 행동학 등의 성과와 윤리학적 지식을 결합하여 과거에 비해 훨씬 정치한 도덕 감정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

8) 실제로 도덕 판단이 이루어질 때의 뇌 활성화 부위에 대한 최근의 fMRI 연구는 이성이나 감정이나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도덕 판단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덕 판단 자체가 갖는 특성상 철저하게 둘 중의 하나로만 이루어진 도덕 판단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Jorge and Oliveira-Souza et al., 2008 참조). 여기에서의 주장은 도덕이 혈연 이타성과 호혜적 이타성에서 관습 윤리와 보편주의 윤리 등으로 역사적 발달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발달에서 이성의 개입 정도가 다르다는 싱어의 입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구성적 정서 경향주의(Constructive Sentimentalism)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 ‘정서 경향주의’는 도덕 판단에서 정서 경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나타내고, ‘구성적’이라는 표현은 정서 경향을 바탕으로 도덕이 창출된다는 것을 나타낸다(Prinz 2007, 9). 유의해야 할 것은 그가 ‘도덕성이 곧 정서나 정서 경향’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덕성이 정서나 정서 경향에 ‘토대를 두고 있다’(grounded in)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서 경향주의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이성 능력의 개입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도덕 판단에서 이성 능력이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정서나 정서 경향은 어떤 도덕 판단에서도 공통적으로 포함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성은 비교적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프린츠(Prinz)의 도덕 판단 기작에 대한 세밀한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면 정서나 정서 경향은 도덕 반응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린츠(Prinz)의 설명처럼 정서이나 정서 경향이 도덕 판단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면 심지어 추상적인 도덕 원리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정서나 정서 경향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진화에 의해 주어진 생래적인 도덕 감정과 도덕 판단을 동일시하지 않고, 진화에 의해 주어진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갖게 된 감정까지도 아우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린츠(Prinz)의 설명은 생래적인 도덕 감정을 이야기하는 루즈(Ruse)에 비해 설득력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도덕 감정들이 환경에 의해 주어지거나 생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래적인 요인들과 환경적인 요인들이 강도 면에서 주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 상의 정서나 정서 경향들이며, 이들이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각기 개별적인 고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할 지 모른다. 예컨대 혈연 이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 감정과 관습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덕 감정은 그 구성 요소를 다르게 파악해야 하리라는 것이다(김성한 2011, 322).

한편 도덕 발달에 대한 싱어의 설명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일부 추상화된 도덕 원리들은 사유의 결과로서 타당성을 인정받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무엇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 듯이 보인다. 싱어(Singer 2012, 252)가 밝히고 있듯이 “윤리 원리들은 하늘나라에서 쓰여진 법칙들이 아니다. 그것은 직관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우주에 대한 절대적 진리도 아니다. 윤리 원리들은 사회적·이성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싱어(Singer)는 사회생물학자들을 따라 “개별 종의 특이한 본성 외부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도덕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Ruse & Wilson, 186)고 생각한다. 그는 복잡한 도덕 체계를 발달시킬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맹아로 주어졌으며, 그것이 이성의 도움을 받아 각종 규칙이나 원리 그리고 이론 등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개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맥키(J. Mackie)의 말대로 도덕 원리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싱어(Singer)의 설명을 프린츠(Prinz)의 것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는 진화에 의해 주어진 고정적인 것이건, 사회화에 의해 주어진 가변적인 것이건, 정서나 정서 경향적 요인이 일정한 도덕 감정을 산출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체로 그린(Greene)이 말하는 ‘개인적인’(personal) 딜레마에 대한 정서 내지 정서 경향적 반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도덕 감정을 느끼는 데에 머물지 않고 ‘왜?’라는 물음과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보편화를 도모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사유 능력이 ‘개인적인’ 딜레마에 대한 판단에서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능력을 최대한 이용할 경우 도덕 원리에 입각한 도덕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사유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도달한 지점이 다른 곳이라면 우리는 메타 윤리학적 상대주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사유를 통해 타당성을 부인하기 힘든 어떤 도덕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원리를 도덕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9)

## VI. 결어

최근의 도덕 판단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윤리학적 논의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걸음마 단계에 놓여 있다. 아직까지는 그 영향력을 가늠한다는 것이 다소 선부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과학과 철학의 접목을 통해 관련 논의들을 심화시켜 보려는 시도는 설령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생산적인 논의를 야기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시도임에 분명하다. 루즈(Ruse)의 논의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후속 연구와 발견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듯이, 설령 과학적 지식을 이용한 윤리학적 논의에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예 무시해 버리기보다는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또 다른 연구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과학의 힘을 빌려 도덕 판단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서와 정서 경향, 이성 능력 등으로 불리는 특징이 도덕 판단에 어떤 역할을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견고한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도덕의 본질에 대한 논의는 한층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9) 물론 이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성한, 2011, “도덕에 대한 발달사적인 접근과 메타 윤리”, 『철학』, 제109집, 4호, pp. 313-339.
- 찰스 다윈(C. Darwin) 저, 김관선 옮김, 2006, 『인간의 유래 2』, 파주: 한길사.
- 피터 싱어(P. Singer) 저, 김성한 옮김, 2012, 『사회생물학과 윤리』, 고양: 연암서가.
- Chandler, J., 1991, "Ethical Philosophy" in. Mary Maxwell ed., *The Sociobiological Imagination*. N.Y.: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Vol. 108, No. 4, pp. 814-834.
- Hauser, M., 2006, *Moral Minds*. N.Y.: HarperCollins Publishers.
- Greene, J. & Haidt, J., 2002, "How (and Where) Does Moral Judgment Work?,"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Vol. 6, No. 12, pp. 517-523.
- Kant, I., 1950, *Foundations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trans. Lewis White Beck,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Moll, Jorge, Oliveira-Souza, Ricardo de, Zahn, Roland and Jordan, Grafman, 2008, "The cognitive neuroscience of moral emotions," in. Sinnott-Armstrong, Walter(Ed), *Moral psychology, Vol 3: The Neuroscience of Morality: Emotion, Brain Disorders, and Development*. pp. 1-17. Cambridge: The MIT Press.
- Prinz, J., 2007, "Is Morality Innate?" in. Sinnott-Armstrong, W.

- ed., *Moral Psychology Vol. 1*. pp. 367-406. Cambridge: The MIT Press.
- Prinz, J., 2007, *The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s*. N.Y.: Oxford University Press.
- Ruse, M., 1993a, "The New Evolutionary Ethics" in Nitecki and Nitecki ed., *Evolutionary Ethics*. N.Y.: SUNY Press.
- \_\_\_\_\_, 1993b, "The Significance of Evolution" in Peter Singer ed., *A Companion to Ethics*. Oxford: Basil Blackwell.
- \_\_\_\_\_, 1986, *Taking Darwin Seriously*. Oxford: Basil Blackwell.
- Ruse, M. & Wilson, E., 1986, "Moral Philosophy as Applied Science," *Philosophy*, Vol. 61, No. 236, pp. 173-192.
- Joyce, R., 2006, *The Evolution of Morality*. The MIT Press.
- Wilson, E., 1980, *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 The Abridged Edition*.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Innate Moral Sense as a Foundation of Studying the Nature of Morality

Kim, Sung-ha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Abstract

One of the deep-rooted problems in ethics is the nature of morality. In general this debate was purely philosophical in the history of ethics. But, recently, there have been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s through the aid of science. Since E. O. Wilson showed the will to integrate ethics into sociobiology, this study makes interesting progresses. The scholar who played the leading role for this kind of study was M. Ruse. He was a philosopher who tried to fulfill Wilson's will. But as he was not an ethical specialist, his works faced many issues. Since then, many scholars tried to make better ethical theories by uniting merits and demerits of Ruse's theory. Through these efforts, the explanation for the mechanism of moral judgment is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ll the time. Also, the discussion of field which he was focused on is becoming popular. In this essay, I tried to signpost a way to solve the meta ethical arguments which concern the nature of morality with these theories. Nevertheless, due to the lack of time, I could not deal with the topic sufficiently. This essay is a kind of a tentative plan, thus, many parts of the arguments should be further reinforced.

**Keywords:** innate, moral judgment, moral psychology, moral principle, moral sense

